

2008년 2월  
박사학위논문

#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 학교폭력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한정선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 학교폭력 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y of Juvenile  
on the School Violence Behavior and Psychological Trait

2008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한정선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 학교폭력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조 동 진

이 논문을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한 정 선

# 한정선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영철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응배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鄭明秀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송채훈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동진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문제 .....	3
D. 연구가설 .....	3
E. 연구모형 .....	5
F. 연구의 제한점 .....	6
G. 용어의 정의 .....	7
II. 이론적 배경 .....	9
A. 청소년 비행의 개념 .....	9
B. 청소년 비행의 원인 .....	10
C.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 .....	15
D. 스포츠 활동 참가와 학교폭력 행동의 관계 .....	20
E. 스포츠 활동 참가와 심리적 특성 .....	24
III. 연구방법 .....	28
A. 연구대상 .....	28
B. 조사도구 .....	29

C. 변인 .....	30
D. 조사절차 .....	35
E. 자료처리방법 .....	37
<b>IV. 연구결과 .....</b>	<b>38</b>
A. 통제변인 특성에 따른 폭력 행동 .....	38
B.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 .....	50
C.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른 심리적 특성 .....	52
<b>V. 논의 .....</b>	<b>65</b>
A. 통제변인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 .....	66
B. 스포츠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 .....	68
C. 스포츠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 .....	69
<b>VI. 결론 .....</b>	<b>72</b>
<b>참고문헌 .....</b>	<b>73</b>
<b>부    록 .....</b>	<b>77</b>

## list of tables

table 1. the present status depending on family relations (2002) .....	10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	29
table 3. the inquisitive analysis of factors on harmful act of violence .....	32
table 4. the inquisitive analysis of factors on mood .....	33
table 5. the composition of items for self-respect .....	34
table 6. the inquisitive analysis of factors on self-respect .....	34
table 7. the reliance coefficient on the subordinate measure of the study on the harmful act of school vio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s up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ports .....	35
table 8. the difference in tease on a school record .....	38
table 9.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	39
table 10.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	39
table 11.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vocational level of father .....	40
table 12.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vocational level of mother .....	41
table 13.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friends' influence .....	42
table 14.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a school record .....	42
table 15.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	43
table 16.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	43
table 17.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vocational level of father ..	44
table 18.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vocational level of mother ..	45
table 19.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friends' influence .....	45
table 20.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a school record .....	46
table 21.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	47

table 22.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 47

table 23.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vocational level of father ..... 48

table 24.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vocational level of mother ..... 49

table 25.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friends' influence ..... 49

table 26.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tease ..... 50

table 27. ANCOVA for tease ..... 51

table 28.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depression ..... 52

table 29. ANCOVA for depression ..... 52

table 30.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sexual violence  
..... 53

table 31. ANCOVA for vitality ..... 53

table 3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anger ..... 54

table 33. ANCOVA for anger ..... 55

table 34.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anxiety ..... 55

table 35. ANCOVA for anxiety ..... 56

table 36.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self-respect ..... 57

table 37. ANCOVA for self-respect ..... 57

table 38. the correlation of mental feature and school violence ..... 58

table 39.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tease  
..... 59

table 40.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sexual  
violence ..... 60

table 41.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bullying  
..... 61

table 42.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tease  
..... 62

table 43.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sexual

violence .....	63
table 44.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bullying .....	64

## list of figures

<figure 1.> the study model of school violence and mental feature .....	6
<figure 2.> the discipline type of parents' .....	13
<figure 3.> Jemes' formula of respect .....	25

# ABSTRACT

##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y of Juvenile on the School Violence Behavior and Psychological Trait

Han, Jeong-Seon

Advisor : Prof. Cho, Dong-Jin, Ph. 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a school record, parents' vocation, friends' influence and school violence for 1,100 boys' high school students belonging to Gwangju Education Office and following four items -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ature of background variable and school violence,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orts activity and school violence,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orts activity and psychological feature, 4.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school vio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 -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y.

The statistical techniques are used such as factor analysis, one-way ANOVA, ANCOV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ease, one of school violence, is higher as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is lower and the number of friends is more and When the student's school record is higher or his parent has an occupation, there appears little tease. And also it appears less often in the group that participates in sports activity than that doesn't.
- 2) Sexual violence is higher as his parent doesn't have a job or the number of friends is less and When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 is higher and his parent has a job, there appears little sexual violence. And also it appears less often in the group that participates in sports activity than that doesn't.
- 3) Bullying, one of school violence, is higher as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 is lower, and his parent has no job or the number of friends is more, it

appears less often in the group that participates in sports activity that doesn't.

- 4) Psychological features, such as depression, anger, and anxiety appears less often in the group that participates in sports activity than that doesn't, while self-respect appears more often in the group that participates in sports activity than that doesn't.

# I. 서 론

청소년 비행이란 일탈된 모든 행동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범법행위와 장차 범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자신이나 가정, 학교,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발달상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인식되며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며,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쉽게 비행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특히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꼭 필요함을 제시해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겠다.

## A.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은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 사고와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가치관의 변화와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정보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놀이문화와 폭력문화 등으로 부정적인 부산물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문화와 사회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 정서적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2000)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접 신체·물리적 폭력피해를 당한 1,098명의 학생 중 폭력을 당한 학생이 635명(57.8%)이며, 금품갈취는 463명(42.5%), 교사 체벌 394명(35.8%)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에 의한 신체적 피해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발육, 발달의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적절하게 대처하는 심리적 자원들을 발달시키지 못한 상태이고 감정, 정서의 기복이 심하여 다원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쳐 판단할 경향성이 크고,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발달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스포츠의 영역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체발달, 체력육성, 정서안정, 순화, 사회성, 도덕성 함양,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의 기회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 무대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제해결 등 청소년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복지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레크리에이션이나 캠프와 같은 스포츠의 하위영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도 스포츠가 긍정적인 역할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인들이 그들의 생활과정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스포츠 활동은 하나의 축소된 사회장면으로서 유희 및 경기의 경험과정에서 규칙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게 하는데 이것은 곧 일반사회에 있어서 합법성을 인정하고 준법하는 성격으로 사회화되는 바탕이 된다, 이에 청소년 각각의 수준에 맞는 건전한 인성 및 태도 형성의 기능과 바람직한 사회화의 가치를 지닌 스포츠를 보급, 장려함으로써 인간의 본능적인 갈등, 폭력성, 난폭성 등을 합법적으로 정화시켜 그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에 따라 파급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신체활동으로서 사회성을 희망적인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구조적 · 문화적 변동으로 파생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그들을 전인적 · 사회적 형성으로 이끄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배경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 한 결과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이 청소년 선도 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여 학교교육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B.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통제변인의 특성으로 제시한 외면적인 생활환경과 사회 조건인 학업성적,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친구의 영향들이 학교폭력 행동에 어떠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서 학교폭력 행동이 조사대상자들에게 있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심리적 특성(기분, 자아 존중감)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C.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통제변인의 특성과 학교폭력 행동 관계
2. 스포츠 활동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 관계
3. 스포츠 활동에 따라 심리적 특성의 관계
4.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 D. 연구가설

가설 I. 통제변인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1. 통제변인의 특성에 따라서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학업성적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6) 친구의 영향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2. 통제변인의 특성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학업성적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6) 친구의 영향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3. 통제변인의 특성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학업성적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따돌림에 있을 것이다.
- 5)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따돌림에 있을 것이다.
- 6) 친구의 영향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이 비 참가 집단보다 우울이 낮거나 높을 것이다.
- (2)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이 비 참가 집단보다 활력이 낮거나 높을 것이다.
- (3)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이 비 참가 집단보다 분노가 낮거나 높을 것이다.
- (4)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이 비 참가 집단보다 불안이 낮거나 높을 것이다.
- (5)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이 비 참가 집단보다 자아 존중감이 낮거나 높을 것이다.

가설Ⅳ.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괴롭힘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성폭력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따돌림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스포츠 활동 비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

1) 스포츠 활동 비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괴롭힘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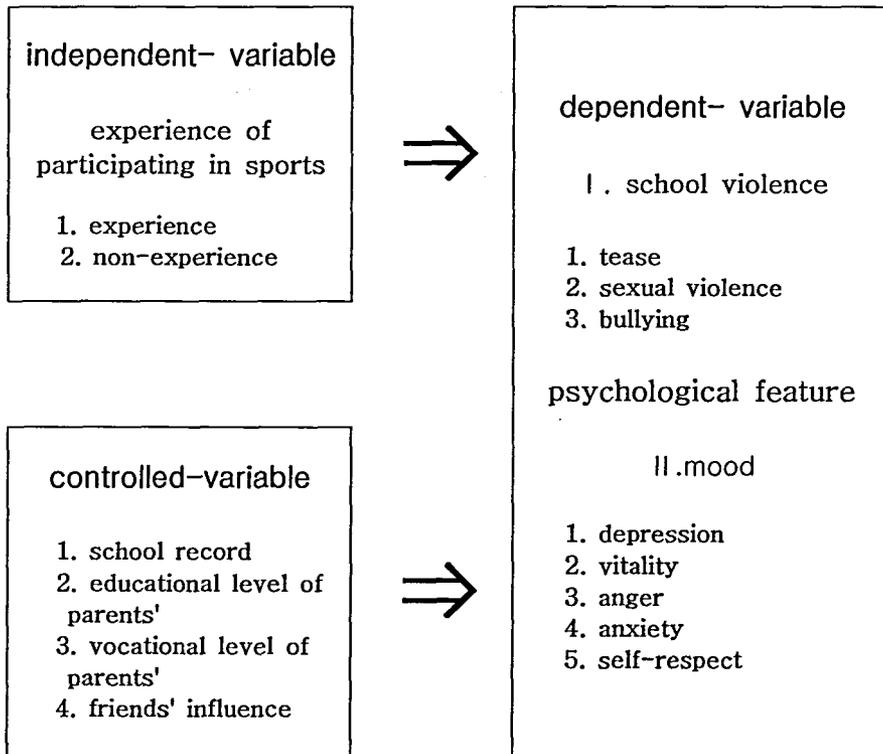
2) 스포츠 활동 비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성폭력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스포츠 활동 비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따돌림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 E.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의 특성 중에 외면적인 생활환경과 사회조건인 학업성적,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친구의 영향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을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으로 보았다.

독립변인의 하위변인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유·무 총 2가지이며, 종속변인은 학교폭력 행동으로 그 유형은 따돌림, 괴롭힘, 성폭력, 심리적 특성의 우울증, 불안, 분노, 활력, 자아 존중감 이상 8가지이다.



<figure 1.> the study model of school violence and mental feature

## F.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자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여자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2. 본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의 폭력가해 학생에 대한 기간은 1년 동안 일어난 상황만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 G.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 아동에서 성인되어가는 과도기적 존재로 12세 이상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남녀를 의미하는 데 본 논문에서는 현재고등학교에 재학생인 17-19세 미만의 학생들을 말한다.

2. 스포츠 활동 참가자 : ASCM의 가이드라인 운동지속 시간인 20분 이상 일주일에 3~5회 이상 방과 후 운동이나 생활 스포츠에 참가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3. 폭력 행동 :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 상호간에 의도적으로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신체적 ·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력 : 사전적인 의미는 ‘사나운 힘’이지만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한쪽이 그렇지 못한 쪽에게 행하는 정신적, 물리적 억압으로 정의한다.

(2) 폭행 : 계급적 요소가 배제되며 학급에서 일어나는 동기간의 주먹다짐으로 정의한다.

(3) 따돌림 : 동료나 친구가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같이 놀아주지 않거나, 끼워주지 않고, 묻는 말에 들은 척하지 않고, 뒤에서 심하게 손가락질이나 고의적으로 따돌리고, 골탕을 먹이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4) 괴롭힘 : 괴롭힘은 일반적인 언어 · 심리적 폭력이나 신체 · 물리적 폭력과 구분된다. 물론 욕설이나 신체 · 물리적 폭력등도 괴롭힘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인 억압이나 강제로 노무를 제공케 하려는 특정유형을 지칭하기위해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 예를 들면 인상쓰기, 집단으로 따돌리기, 더러운 몸짓하기, 요청 거절하기, 체육복, 가방, 신발 등 훼손, 목조르기, 옷 벗기기, 심부름, 숙제 강제로 시키기, 준비물 빼앗기, 시험 답안지 보여 달라는 협박 등의 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성폭력 :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된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 범죄로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며 본 논문에서는 말이나 몸짓으로 성적

회룡이나 몸의 일부분을 만지거나 몸을 밀착시키거나 하는 가벼운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억지로 벗겨 가슴 등을 만지는 심한 추행 강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기분 : 영속적이지 않으며 지속시간이 다양하고 정서적 또는 감성적 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울, 활력, 분노 불안 등 4가지의 요인을 의미한다.

(7) 자아 존중감 :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존중하고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A. 청소년 비행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좁은 의미로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하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고,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는 경우이며, 우범소년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④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음주, 흡연, 싸움, 흥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으로 정의한다.

## B. 청소년 비행의 원인

비행청소년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가정환경 요인, 지역사회 요인, 학교생활 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1. 가정환경 요인

가족은 일생을 통해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 사회화를 통하여 형성된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은 어릴 때 비행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예방하기도 하며,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개개인에게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으로 남아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행소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나타난 가족의 특성에는 가족해체 현상,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가족성원간의 낮은 응집력, 빈곤가정, 가정 내 도덕의 부재가 있다.

### 2. 비행청소년 가족의 특성

#### a. 가족구조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결손가족'의 문제를 흔히 지적한다. 하지만 결손가족의 특성은 부모 어느 한쪽이 아동의 양육현장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구조적 영역과 구조적 결손에 의해 아동에게 양육적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인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구조적 결손과 청소년비행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table 1. the present status depending on family relations (2002)

	family relations	person(number)	ratio(%)
unmarried	parents	91,481	73.8
	stepparents	247	0.2
	mother-stepfather	753	0.6
	father-stepmother	1,274	1.0

father-nonmother	8,406	6.8
mother-nonfather	9,397	7.6
stefather-nonmother	56	0.05
stepmother-nonfather	59	0.05
nonparents	4,261	3.4
unknown	117	0.1
married	7,870	6.4
total	123,921	100

자료 : 대검찰청

결국 비행청소년의 74%정도는 양친생존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무와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는 가출 이외의 다른 비행항목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중 한 분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사별이 아닌 이혼, 별거의 경우에만 비행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결손가족 자체보다는 결손가족의 유형 혹은 기능적 특성이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 가족의 구조상 가장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가족성원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유리되어 결속력이 약한 원심성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성원 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가족으로서 구심력이 없다는 점을 비행청소년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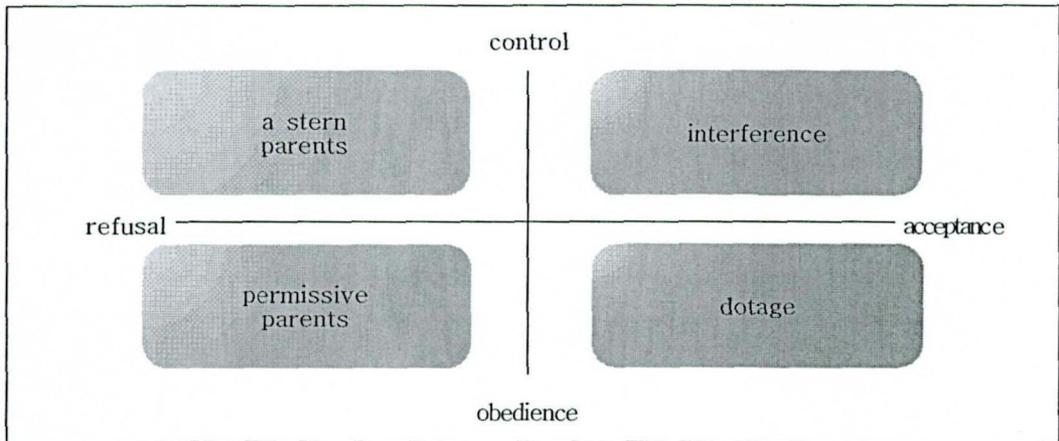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어른들이 서로 강한 결속을 형성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비행청소년 가족은 한부모 가족으로서 부부하위체계를 형성할 수 없거나 혹은 양친부모 가족이라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부부관계가 소원하거나 한 쪽 부모가 알코올중독, 정서 장애, 폭력 행동 등으로 배우자 역할 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기능으로부터 철수한 경우가 흔하다. 결과적으로 세대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부모와 문제자녀 사이에 세대간 연합이 형성 될 수 있다. 주로 부 혹은 모는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혹은 배우자를 공격하기 위해 문제 자녀와 연합함으로써 삼각관계(triangle)를 형성하는데, 부 혹은 모와 연합한 자녀는 다른 부 혹은 모와 멀어지게 되고, 정서·행동의 문제를 보이거나 가족 내의 희생양(scapegoat)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b. 의사소통

비행청소년 가족을 연구한 학자들은 가족 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비행청소년 가족의 성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이중메시지를 주고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거나 비난, 위협, 말다툼 등이 흔하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 c. 부모기술

자녀의 비행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혹은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인 양육태도 등 부모기술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비판과 거부는 자녀의 친구와 형제, 어른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에게 혹독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들은 남을 무시하는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상 정상적인 행동을 부모가 반항적·도전적인 행동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 혹은 부모에게 신체적 처벌을 받거나 받을 위협을 당하는 자녀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부모의 폭력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쉽게 행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과잉보호 혹은 간섭 역시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훈육방법에 대해 지배와 복종, 수용과 거부를 각각 X, Y 양축으로 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청소년비행과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figure 2.> the discipline type of parents'

### (1) 지나친 간섭형

지나친 간섭형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오히려 자녀의 인격발달에 해가 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지적 능력, 학업성적에만 집중되어 자녀들은 늘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며,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학교에 무단결석하거나, 학교 주변이나 유흥가를 배회하다 사귀게 된 친구들과 비행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 (2) 지나친 사랑형

지나친 사랑형의 부모는 자녀의 욕구나 정서를 지나치게 존중하고 자녀의 조그마한 행동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녀는 정서적으로 미발달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되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자녀의 비사회적 성격의 형성을 조장하게 되고,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 자녀들은 친구들과로부터 수용되기 위해 절도 등의 비행에 연루되기도 한다.

### (3) 엄격형

엄격형의 부모는 자녀가 아닌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물리적인 힘과 권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따듯한 사랑을 베풀지 않은 채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엄한 벌로 자녀들을 다스린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에 자녀들은 불만과 증오심을 가지게

된다. 부모에 대한 복수 혹은 주목을 끌기 위한 동기에서 절도·공격적 행동 등을 하게 된다.

#### (4) 방임형

방임형의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를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둔다. 부모의 방임은 곧 사회화의 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임된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사회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충족하고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비행청소년은 가족해체 현상이 있거나,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원간의 응집력이 낮거나 가정이 빈곤한 경우 및 도덕적 가치기준이 부재한 가정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 d. 가족규칙

가족 내에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행동규범이나 가족규칙이 없거나 규칙이 있어도 애매모호한 가족에서 청소년의 비행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교우관계, 여가시간의 활용, 귀가시간 등을 통제하는 적절한 가족 내의 규칙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칙을 지킴으로써 책임의식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비행청소년 가족은 일관성이 없는 훈육이나 한쪽 부모가 정한 규칙이 다른 쪽 부모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어떤 행동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대안적 행동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

### 3.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 또한 비행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빈민가나 향락가 등 불량 주거지역은 바람직한 집단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부조리가 존재하므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착시킬 표준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로 인해 가출 또는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유해환경 지역은 여러 가지 비행이 노출되어 있어 비행의 모방과 모델링을 용이하게 만든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불량 주거지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도시화(urbanization) 현상으로 인해 도시에 편입된 주변군에도 비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4. 학생생활 요인

비행 청소년 중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거나, 교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진학 및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불량 친구와 어울리는 등의 생활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음주, 흡연, 본드흡입 등의 약물남용이나 절도, 폭행, 강간 등 범법행위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C.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

#### 1. 스포츠 활동 참가의 개념

개인이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면 스포츠 활동의 경험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에게 일으킬 변화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체력의 증가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는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변화의 내용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하여 심리적 경험에 노출되는 기회는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 참가에 욕구가 생기기 위해서는 심리적 이점이나 근육활동을 통하여 근원적인 경향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경기에 참가함으로써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노력에 비하여 컸던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기대가 예견 될 경우나 운동경기에서의 성취 그 자체가 보상받는 경우, 사용 가능한 장비나 시설의 질이 만족스러울 경우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포츠 활동 참가는 다양한 스포츠 현상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동기적 행동으로

서 참가의 방법, 참가 기간, 참가 장소 등에 의해 참가 형태가 상이해지며 스포츠 활동 참가의 유형에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역할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참가 형태를 여러 측면에서 세부화 시킬 수 있다.

Kenyon(1969)은 스포츠 활동 참가의 형태를 인간의 외면적, 내면 행동 차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여 참가 내용의 특성에 따라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로 구분하고 스포츠 활동 참가의 역할에 의해 참가자, 생산자, 소비자로 세분하고 있다. 행동적 참가는 스포츠가 실제로 행하여지고 영위되어지는 스포츠 역할에 의해서 일차적 참가와 이차적 참가로 나눌 수 있다. 일차적 참가는 게임이나 스포츠에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참가하는 경기자 자신에 의한 활동이다. 일차적 역할의 형태를 세분화하면 승자, 패자, 주전선수, 후보 선수, 슈퍼스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차적 참가는 선수로서의 참가가 아닌 그 이외에 스포츠 생산과 소비과정에 포함되는 참가형태이다.

한편 Leonard(1980)는 스포츠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세분하기 위한 참가형태를 일차적 참가로 나누고 각각 직접·간접 참가로 세분화하였다. 일차적 참가의 직접참가는 경기자이며 간접참가는 경기상황에서 선수 이외의 역할을 담당하는 참가자이다. 이차적 참가는 일차적 참가로 인정되지 않는 여타활동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직접참가(간접 생산자)와 간접참가(소비자)로 나뉜다. 여기서 팬은 일차적 참가자가 형성한 분위기에 직접 참가하는 현장관중으로부터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스포츠란 애독자까지를 포함하여 관리자와는 달리 역할에 있어서 인지적, 정의적 차원의 높은 참가 수준을 필요로 한다.

인지적 참가는 학교, 사회와 매스컴, 대화 등을 통하여 스포츠에 관한 일정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참가이다. 이러한 정보에는 스포츠 역사, 규칙, 기술, 전술, 선수, 팀 경기전적 등에 관한 지식이 있다. 스포츠 활동 참가자의 역할에 대한 학습이나 실전도 역할 수행자의 인지적 체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이 참가하는 스포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참가의 정도는 참가의 빈도, 기간, 강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에 따라 참가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참가 빈도는 특정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횟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참가 기간은 특정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얼마나 오랫동안 참가하였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참가 강도는 특정 개인이 스포츠 직접 참가에 개입 또는 몰입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스포츠참가의 역할이나 지위를 알아보거나 일회

스포츠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 또는 참가한 경험이 있는 종목의 수를 알아봄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 2.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기여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

스포츠에 개입이 이루어져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스포츠 활동 참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스포츠 활동에의 참가가 문제시되는 것은 스포츠란 누구나 모두 일정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각자가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Kenyon(1969)는 스포츠 활동 참가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성친구, 학교코치 등과 같은 주관자의 영향이 컸으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주관자는 부모였다고 한다. 특히 부모의 영향은 고등학교나 대학시기에 크게 나타난다. 둘째 고등학교 시기 이전에는 참가한 운동 종목에 따라 주관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스포츠 활동 참가 과정에 대한 또 다른 요소로서 Nixon II(1976)는 사회·경제적 배경 주관자의 사회적 명성과 권위, 참가에 대한 기회의 인식구조 등을 제시하였는데 후에 Leonard(1980)는 위의 요인에 덧붙여 개인의 체력과 인성적 요인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스포츠 활동 참가를 장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부모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대한 관심 및 장려는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 참가 가능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켜 준다. 아동기의 스포츠 활동 참가 또한 각 개인의 운동능력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인기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Kenyon과 McPherson(1974)은 남아의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 출신이거나 성취동기가 높은 기업가인 아버지의 유·무, 어릴적에 민주적·관용적이며 온화하거나 독립심을 강조하는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고 부모가 스포츠를 할 경우, 그리고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친구의 유·무 등이 스포츠 활동 참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제시하였다.

Ekkekakis와 Petruzzello(1999)에 따르면 “운동하는 동안의 정서반응은 긍정적인 정서반응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라고 기술되었다. 운동을 통하여 정

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활력, 혼란, 분노, 피로, 긴장과 갈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분 상태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Leonard(1980)의 지적과 같이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있고 미래의 전망이 희망적이고 운동성취 그 자체가 보상이 되며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용구와 시설이 만족하다고 느껴지면 스포츠 활동 참가는 더욱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다.

### 3. 청소년기의 스포츠 기능

오늘날 서구화 물결 속에서 전통적 가치가 붕괴됨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젊은이와 기성세대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문제화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스포츠의 가치를 심리적·사회적·문화적·신체적 가치로 분류 할 수 있다(이경우, 2001).

첫째, 심리적 가치이다. 청소년들의 태도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행동으로 적응기능, 자아방어기능, 탐구기능 등을 갖고 있다. 즉 사회적 요인, 집단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과 기능을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고립간의 해소, 개인의 판단능력 향상, 집단협동의 증진, 집단에 대한 만족감등의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심리적 가치에서는 올바른 태도 형성, 사회적응력 배양, 감각지각과 반응의 향상, 정신건강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이다.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인식하게 되는 최초의 지식이 경기에 대한 규칙이다. 청소년은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규칙에 대한 공정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사회에서도 합법성을 인정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스포츠의 경쟁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우고 경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계획성, 자기 팀을 위한 개인의 희생정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에서는 인격형성, 체력증진, 국민정신 함양, 건전한 경쟁심 함양, 충성심 및 이타심 함양과 인내력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문화적 가치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투쟁적인 충동과 그 표현은 중요한 본능적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러한 충동에 대하여 만족을 구하려 함은 당연한 이치이며,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그 한 예이다. 스포츠 활동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합리적으로 표출시키는 수단이므로 스포츠 활동 참가의 기회는 투쟁 본능의 충족을 위한 욕구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 따라서 스포츠의 문화적 가치에서는 사회통합과 자기통제 능력배양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신체적 가치이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은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며, 동시에 인격의 형성, 체력증진, 국민정신의 함양, 건전한 경쟁심함양과 사회통합 및 통제능력을 배양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매사에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건전한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히 즐기는 오락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인격형성을 돕는 바람직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업에 매달려 반복되는 시험 속에 있거나, 노동 속에서 인격형성이 불균형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스포츠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유도하여 그들이 스스로 경험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 심리적 과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열등감과 약점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적절히 충족 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셋째, 스포츠 활동이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부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욕구를 갖고 있는 우발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넷째,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잊고서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만남을 가짐으로써 건전하고 손쉬운 치료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복잡한 사회생활과 생계유지의 필수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단순하고 친진하고, 때 묻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이러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여섯째, 개개인이 그들 스스로만 즐기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흥미의 폭을 넓혀가고 어떤 집단의 성원으로 소속감과, 안정감, 개인에게 부족하였던 경험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회 · 교육적 측면의 중요한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사회화 · 사회통합, 사회이동, 문화주입기능 등을 효과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체육의 제반활동이 청소년들에 의해 마음껏 향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기능에 대한 규명은 스포츠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다루어온 주된 과제중의 하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있어 스포츠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스포츠 기능에 대해 학자를 달리하여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었으며, 비행과 관련된 스포츠의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에 대해 다양한 기능들이 제시되고 있다.

## D. 스포츠 활동 참가와 학교폭력 행동의 관계

### 1.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가와 학교폭력 행동 이론

비행의 발생원인과 과정이 스포츠 상황에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가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행이론을 비행의 원인과 과정에 초점을 두어 스포츠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a. 아노미 이론

스포츠 상황에서 문화적 목표란 승리 혹은 우수한 선수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내의 문화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일반사회의 문화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화 되고 조직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현대스포츠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으며 일반사회의 문화적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수나 팀 혹은 구단주들은 스포츠 내에서의 고의적인 규칙위반, 스포츠 제도의 악용, 부정선수의 기용, 약물복용, 부정적인 돈 거래에 의한 선수영입, 심판과 구단주와의 부정적인 결탁, 더 나아가 범죄행위와 같은 부정적인 수단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Merton(1967)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어진 사회의 각종 규범에 적응하여 나가는 개인의 적응 방식(Modes of adaptation)을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연형인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적응현상이 스포츠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동조형은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 된 수단을 통해 목표를 추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동조자란 모든 규칙을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한다. 물론 동조자는 탈선자가 아니라 모범적인 사람이다.

둘째, 혁신형은 범죄자의 전통적인 형태로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지만 제도화 되는 수단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일탈형태가 가장 많다. 이에 대해 임변장(2000)은 선수충원과 관련된 스카우트 물의, 약물복용, 경기장 폭력 및 난동, 담합에 의한 승부조작, 고의적인 각종 경기규칙 위반 등 다양한 스포츠 일탈현상은 스포츠의 문화적 목표인 승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승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제도화된 수단의 거부로 유발되는 긴장에 대한 혁신적 적응모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였다.

셋째,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나 제도화 된 수단을 수용하는 탈선형으로 무사안일주의의 관료나 기계적으로 학교 숙제만 하는 학생 등이 이에 속한다. 운동선수 중에는 자신이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 한다거나 팀이 우승을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결여된 채 단순히 연습에만 맹목적으로 참가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의례형에 속한다.

넷째, 도피형은 문화적 수단과 제도화 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유랑자 등이 이에 속한다. 스포츠에서 도피형이란 스포츠의 비인간성, 상업주의의 만연 과도한 경쟁, 사회적·경제적 대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섯째, 반역형은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 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동시에 새로운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하려는 삶으로 욕구불만의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사회구조를 건설하려고 한다. 스포츠에서 반역형 적응모형은 주로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올림픽 개선운동, 국민체육진흥운동, 샴아추어운동(Shamateur movement)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의 규범에 대한 적응방식이 스포츠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스포츠에 참가한 사람은 이러한 규범에 대한 적응방식을 경험하게 되고, 스포츠를 통해 가치가 전달되고 사회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경험한 적응방식을 내면화하게 된다.

## b. 차별접촉이론

청소년 폭력 발생원인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차별접촉을 통한 비행행위의 학습은 스포츠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스포츠 상황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상자로는 팀 동료와 코치를 들 수 있다. 만약 이들 중 비행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야 하는 스포츠 특수성으로 인해 비행행위의 학습은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강조한 팀웍이나 조직력이 구성원간의 단합과 결속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비행행위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습득될 요지는 매우 높다.

이러한 차별접촉이론적 시각에서 스포츠 활동 참가 와 비행의 관계를 해석할 연구가 있다. Snyder(2006)는 범죄를 일으킨 7명의 미국대학 운동선수들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같은 팀에 속한 선수들과의 관계는 삶의 방식, 공부와 여가활동 그리고 특히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Hughes(1984)와 Coakley(1983)는 과잉복종과 지나친 결속을 강조하는 스포츠는 비행행위를 자극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스포츠 집단이라는 소집단내에서도 성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비행행위에 필요한 동기, 태도, 기술 등을 학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c. 하위문화이론

하위문화를 통한 비행발생의 과정은 스포츠의 상황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스포츠는 지배적인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이와는 다른 하위문화를 가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되는 스포츠의 뒷문에는 시합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속적인 속임수, 의적인 파울, 또는 꼭 승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뒤엉켜 있다. 선수와 코치 그리고 후원단체는 승리를 위해 상대에 대한 고의적인 파울이나 비신사적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연습을 통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는 McPherson, Curtis & Loy(1989)의 스포츠 하위문화는 지배적인 사회문화와는 다른 비행적인 스포츠 하위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하위문화에는 상대에 대한 속임수, 제도화 된 폭력, 도박, 심지어 비행적인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언급하였

다. 따라서 스포츠는 더 이상 비행행위를 억제하는 사회제도로써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Donnelly와 Young(1988)은 게임 후 난폭함과 과음, 과거의 회상, 도피 그리고 파괴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스포츠 하위문화로서 스포츠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몸싸움과 위험감수 그리고 동료와의 결속을 제시하였다. 특히 럭비, 하키, 산악, 싸이클 등의 경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하위문화의 형성과 사회와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하위문화 이론적 측면에서 스포츠 하위문화가 개인으로 하여금 비행행위에 참가케 한다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비행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은 무리가 아닌 듯싶다.

#### d.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 이론적 견해에서 볼 때 스포츠는 사회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곧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스포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경쟁과 승리를 추구 하는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와 관련된 타인과의 결속은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상대적으로 학교동료나 선생님과 접촉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은 학업이나 기타 일반학생들이 가지는 관습적인 행위에 대한 참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관습적인 행위에 대한 수용이나 신념이 약해질 수가 있다.

학업과 관련된 통제력의 약화는 운동선수의 여가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은 여가시간에 학업을 위한 일보다는 유흥을 즐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학래(1990)는 대학체육 특기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락이나 음주 등 유흥이 운동훈련이나 수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38.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이 음주와 퇴폐성 오락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과도한 훈련과 경기 또는 학교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라고 하였다.

특기생으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일부 뛰어난 선수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동선수들도 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또 다른 삶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의 경우 스포츠 활동 참가가 학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고를 통

해 스포츠가 학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포츠 활동 참가는 선수들로 하여금 몇몇 관습적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기능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E. 스포츠 활동 참가와 심리적 특성

### 1. 자아 존중감의 개념

자아 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아상(self-image)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자아 존중감은 평가적인 차원을 내포한다 하겠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유형의 인간이며 남들이 관심을 갖는 특질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에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평가는 판단, 또는 자기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아 존중감은 자기의 특질 혹은 속하는 범주,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는 소임에 대하여 자기평가를 해서 느끼는 자기에 대한 태도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좋고 나쁘다는 식의 정서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는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아개념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의 본질적이고 뚜렷한 특징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평가를 통하여 형성되는 총체인 반면 자아 존중감은 자아 개념에서 발견되는 특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Rosenberg(1979)는 자아 존중감을 자신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 했으며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비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신감은 당면한 어떤 장애를 성공적으로 극복 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자아 존중감은 자기 수용(Self-acceptance)과 자기존경(self-respect), 그리고 자신이 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감이 높다고 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은 아니다. 즉,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일에서 앞설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낼 수 없거나 명예가 손상된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다면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지 못할 경우가 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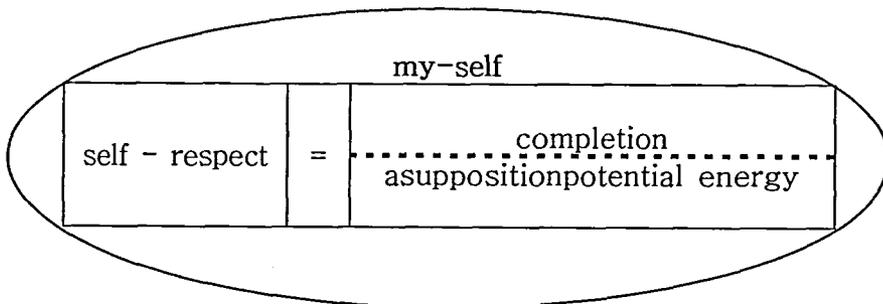
한 문제에 대한 도전과 해결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도덕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생활을 한다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Rosenberg(1979)는 사회적 정체성, 개인적 기질, 신체적 특성을 자아 존중감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사회적 정체성에서는 사회적 지위(연령, 성, 가족에서의 위치, 직업), 회원집단(마라톤 선수, 우표 수집가, 민주당원), 꼬리table(중독자, 도둑), 과거의 지위(대학학위, 전쟁배테랑), 중요한 특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형태(플레이보이, 학자, 운동선수)등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적 기질은 사람들의 특성, 능력, 좋아하는 반응경향에 대한 자아인식과 관련되고, 신체적 특성은 자기의 신장, 체중, 체형, 매력, 근력 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평가적 묘사에 관련된다.

Jemes(1890)는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다음의 그림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figure 3.>은 자아 존중감을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이면서 근원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자아 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자아개념이 자아 존중감보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havelson, hubner & Stanton(1976)은 자아개념의 모형을 만들어 설명하였는데 통합적인 자아 존중감은 구조화된 사회, 학문, 신체적인 면과 가히 다차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차원은 상황-부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자아 존중감에 대한 특징은 각 개인에 의한 그들이 지각하는 중요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Jemes(1890)는 자아 존중감이란 나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 개인에 대한 가치감은 가정된 잠재력에 실제 얻게 되는 성취의 비율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3.> Jemes' formula of respect

Jemes(1890)는 자아 존중감에 대한 개념으로 성취의 차원과 그리고 이러한 평가로 얻어진 정서를 중요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 존중감의 정의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며 자아 존중감은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용어 들이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정의에 공통되는 내용으로는 자아 존중감이란 모두 자기평가라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총체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은 자아개념 또는 자신감과는 구별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지만 오만함과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2. 자아 존중감과 신체활동

많은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과연 운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 또는 자아 가치와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스포츠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또 다른 중요성을 역설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스포츠에서 자아개념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운동과학 분야인 운동심리학 영역의 연구들은 스포츠나 운동과 같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가 개인의 체력이나 신체적 건강에 더불어 장, 단기적인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 예로 운동이나 무용과 같은 신체활동은 개인의 객관적인 신체능력을 높임으로써 신체능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이차적인 자기능력 평가인 주관적 신체능력을 상승시킨다고 하였다(지한영, 2001).

심리학적 측면에서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자신의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개념을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운동참여(또는 신체활동)와 신체적 자기 효능감 발달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운동이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고 신체능력을 높임으로써 신체능력에 대한 자기지각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신체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 평가 또한 향상시켜 생활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활력을 준다는 점에서 운동은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아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또한 운동기술 습득은 스스로의 운동 기술을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평가를 하게 되므로 자아와 자아 존중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습 기회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흥미를 느끼게 되며 운동기술이 숙달되게 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신체발달은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도피와 반사회성을 감소시킨다(선우진, 2001).

체력과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심폐지구력과 근력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Biddle(1993)등의 연구는 신체활동이 불안, 우울증에 도움을 주며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킨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집단상담, 집단 경험, 프로그램 실시, 자기훈련 등으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성적, 부모의 직업, 학력, 친구의 영향에 따라 학교폭력을 분석하고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 간에 인과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조사도구, 조사절차 및 자료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부교육청(C고, D고, SY고, S고, M고, HP고, SD고, CH고), 서부교육청(S고, DY고, D고, M고, DA고, DS고, P고, J고, SK고)의 총 1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2007년 4월부터 5월 동안 총 1,160명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표본 수 1,160명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조사후기에서 신뢰도가 낮은 표본 106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분석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연구 대상은 총 1,054명이었고, 스포츠 활동 참가인원은 402명이고, 비참가인원은 652명이었다. 이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vari- able	division	case (per- son)	per- cent (%)	vari- able	division	case (per- son)	per- cent (%)
school	liberal	539	51.1	sports experience	experience	402	38.1
	industry	244	23.1		non-experience	652	61.9
	art-physical	271	25.7				
fa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a middleschool	130	12.3	mo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a middleschool	135	12.8
	under- a highschool	469	44.5		under- a highschool	638	60.6
	under- a university	455	43.2		under- a university	281	26.7
father's vocational level	professional	89	8.5	mother's vocational level	professional	76	7.2
	manager, administrative	165	15.7		manager, administrative	59	5.6
	employee	262	25.0		employee	110	10.5
	salesperson, services	266	25.0		salesperson, services	255	24.3
	faculty, production	144	13.7		faculty, production	77	7.3
	the others	124	11.8		housewife	415	39.5
					the others	58	5.5
a school record	a high rank (1-10 class)	289	27.4	the friends' influence	under-2-3person	171	16.2
	meddle (11-20 class)	375	35.6		4-9person	321	30.5
	a low rank (31 class over)	390	37		over-10person	562	53.3
Total		1054	100.0	Total		1054	100.0

## B. 조사도구

폭력 및 비행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점은 폭력 및 비행에 대한 개념과 범위 그리고 측정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폭력 및 비행에 대한 발생과정의 측정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법정의 기록이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자기 보고법,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어느 방법이든 난해하고, 복잡하고, 숨겨진 폭력 및 비행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통해 자기보고법이 단점은 있으나 Johnson(1979)의 ‘폭력 및 비행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은 자기 보고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와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자기 보고법을 시행하였다.

한편, 스포츠 활동 참가 경험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련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황성숙(1999), 염영옥(1999) 등의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학교폭력 행동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고, 심리적 특성은 Rosenberg(1985)의 자아 존중감 검사와 McNair et al(1971)의 POMS(Profiles of mood states)검사를 기초로 하여 심리적 특성의 검사 질문지를 작성한 다음,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근거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재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 수행에 알맞은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주요 구성지표는 개인적 특성 9문항, 기분 18문항, 자아 존중감 9문항, 폭력 행동 18문항 등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C. 변인

### 1.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은 학업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친구의 영향(수)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본 질문지의 응답 형태를 측정하는 평정척도는 각 문항의 특성에 따라 명목척도와 등간 척도를 이용하였다.

###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을 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를 설정하였다. 스포츠 활동 참가 활동여부는 직접적으로 스포츠에 참가 하는 청소년과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으로 구분하

였다. 스포츠 활동 참가기준은 ASCM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동지속시간의 20분 이상으로 하였고, 운동빈도는 주당 3~5회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3. 종속변인

#### a. 학교폭력 행동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폭력 행동은 괴롭힘과, 성폭행, 따돌림으로 나누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랐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설문 내용을 만들기 위하여 최자은(1998), 정지민(1998), 황성숙(1999), 이상균(1999), 염영옥(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청소년 폭력 행동에 관련된 항목들의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자가 재분석한 청소년 비행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71~.9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 행동측정을 위한 검사도구의 신뢰도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문항은 '①없다' '②한두 번 있다' '③가끔 있다' '④자주 있다' '⑤매우 자주 있다'의 5단계빈도 척도를 구성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종합 평정법을 이용하여 점수화 하였다. 계수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inquisitive analysis of factors on harmful act of violence

	Factor			
	tease	sexual abuse	bullying	covariance -ratio
tease 1	.769	-.023	-.105	.645
tease 2	.766	-.068	-.090	.709
tease 3	.740	-.110	-.122	.660
tease 4	.727	-.053	-.066	.668
tease 5	.715	-.015	-.100	.566
tease 6	.698	-.028	-.036	.526
tease 7	.647	-.0152	-.073	.490
tease 8	.636	-.013	-.026	.589
tease 9	.634	-.097	-.106	.562
tease 10	.609	-.167	-.190	.642
sexual abuse 1	-.126	-.405	2.05	.937
sexual abuse 2	.183	-.746	-.059	.771
sexual abuse 3	.204	-.493	-.014	.516
bullying 1	-.091	-.048	-.839	.712
bullying 2	-.019	-.025	-.726	.619
bullying 3	-.072	-.457	-.687	.497
bullying 4	.140	-.031	-.649	.537
bullying 5	.178	-.018	-.499	.495
eigen value	13.053	1.925	1.217	
% of variance	40.792	6.017	3.803	
cumulative	40.792	56.850	60.653	

## b. 심리적 특성

### (1) 기분

기분상태 측정도구는 McNair(1971)등이 POMS검사지를 개발한 것으로 우울, 분노, 불안, 활력, 피로, 혼란의 6개의 하위요인 중 4개 하위요인인 우울, 활력, 분노, 불안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기분상태를 묻고 간단한 형용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면 변형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하위요인은 우울, 활력, 분

노, 불안 등이 있다.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sim.92$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분상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inquisitive analysis of factors on mood

	Factor				covariance -ratio
	depression	vitality	anger	anxiety	
depression 1	.835	-.018	.141	.067	.721
depression 2	.806	.010	.148	.126	.687
depression 3	.656	.063	.254	.295	.586
depression 4	.589	.050	.269	.228	.625
depression 5	.553	-.063	.389	-.023	.630
depression 6	.550	.128	.058	.231	.512
depression 7	.532	.115	.127	.489	.572
depression 8	.531	.320	.368	.214	.594
vitality 1	.103	.759	.062	-.077	.680
vitality 2	-.042	.753	-.072	.110	.640
vitality 3	.265	.728	-.029	.040	.634
vitality 4	-.033	.607	-.065	.052	.557
vitality 5	.056	.582	.046	.041	.517
anger 1	.073	-.040	.622	.063	.631
anger 2	.205	-.096	.585	.104	.553
anger 3	.251	.011	.524	.052	.507
anxiety 1	.421	.063	.423	.424	.516
anxiety 2	.235	-.083	.277	.427	.698
eigen value	5.671	2.997	1.371	1.047	
% of variance	29.85	15.67	7.21	5.508	
cumulative	29.85	45.520	52.73	58.24	

## (2)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85)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김충희(1995)가 수정한 척도는 Cronbach's  $\alpha=.83$ 이었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이며, 긍정적 자아 존중감 4문항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5.는 자아 존중감의 문항구성이다.

table 5. the composition of items for self-respect

region	term
positive self-respect	1, 2, 3, 4
negative self-respect	1*, 2*, 3, 4*, 5*

(\*table는 역 채점 문항임)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Likert식 5점 척도 선에서 평점하도록 하였다. 채점은 긍정적인 문항은 그대로 하고 부정적인 자아-자존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응답을 역산한 후 긍정적 자아 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과 서로 합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점수는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이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은 table 6. 과 같다.

table 6. the inquisitive analysis of factors on self-respect

	Factor		covariance-ratio ( $h_2$ )
	positive self	negative self	
positive self 1*	-.842	.042	.710
positive self 2	-.820	.025	.685
positive self 3*	-.669	-.042	.613
positive self 4*	-.523	-.094	.468
negative self 1	-.116	.785	.597
negative self 2	-.081	.779	.615
negative self 3	-.020	.639	.523
negative self 4	.132	.543	.509
negative self 5	.194	.520	.522
eigen value	3.843	1.564	
%of variance	42.699	17.379	
cumulative	42.699	60.401	

#### 4.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검사 방법은 Cronbach's  $\alpha$  값이다.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얻어진 스포츠 활동 참가경험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하위 적도별

신뢰도 계수는 table 7.에 지시된 바와 같다.

table 7. the reliance coefficient on the subordinate measure of the study on the harmful act of school vio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s up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ports

variable	division	case (person)	Cronbach's a
mood	depression	2	.7955
	anxiety	8	.9201
	anger	3	.8826
	vitality	5	.8168
self-respect	positive self-respect	4	.7952
	negative self-respect	5	.7952
harmful act of violence	tease	10	.8735
	bullying	5	.9188
	sexual abuse	3	.8853

#### D. 조사절차

설문지 조사는 사전에 설문지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연구자와 함께 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담당 교사나 체육담당교사와 가급적 연구자와 조사원 1명과 함께 수업 또는 종례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교사, 교육받은 조사원이 정규 수업 시간이나 방과 이후 교실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최대한의 숨은 폭력 및 폭행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시작 전 1분에 걸쳐 응답자가 질문지 첫 장을 정독하게 했다. 조사자가 약 3~5분간에 걸쳐 질문 조사의 중요성과 유의 사항을 설명한 다음에 편안한 마음 자세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충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일반학생의 경우는 설문지 응답이 끝난 후 회수 시에는 개인이 직접 들고 나와 조사자가 설문지를 확인하여 표집에서 기각되는 사례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학생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작은 봉투와 큰 봉투, 테이프를 준비하여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지는 학교 당국이나 담당교사나 체육 교사에게는 일체 비밀이 유지되

며, 전체 학생의 설문지 응답이 끝남과 동시에 연구자에게 즉각 발송된다는 점을 재차 알려주었다. 어떤 학교에서는 조사자가 작은 봉투와 풀, 테이프를 준비하여 응답이 끝난 후 테이핑 혹은 풀칠한 후 제출케 하여 일반 학생들의 숨은 폭력과 폭행을 솔직하게 응답 하도록 했다.

특히 담당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좀 더 충분한 조사 시간을 주어서 현지 집단 조사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6년 6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50일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유·무와 청소년 폭행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근거로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재검증해 보았다.

예비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예비검사의 목적은 설문지 내용과 구성의 적합성 및 설문 내용이 고등학생과 우리의 실정과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1차 예비 조사는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수집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예비검사에서는 심리적 특성 검사지인 자아 존중감 질문지에서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심리적 특성인 정신건강 질문지(SCL-90-R), 그리고 학교폭력 행동 질문지에서는 타당도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 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경험이 있거나 지식 및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박사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한 설문 내용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예비검사에서는 본 연구자가 설문 내용 중에 논리적으로 부적합한 내용을 지적하도록 요구하였고, 지적된 사항은 두 번째 예비 검사 설문지 개정시에 반영 수정하였다.

두 번째 예비검사는 1차 검사지의 수정·보안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첫 번째 예비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 내용의 적합성을 평가함과 아울러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재확인 검증하는데 있었다. 두 번째 예비검사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과 더불어 이해가되지 않는 문항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지

적하여주도록 요구한 다음, 제기된 문제는 본 조사 설문지 작성 시 이를 반영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선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 E.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설문한 최종 1,054명의 자료를 spss/win program Ver.12.0에 코딩 후 연구가설 및 연구 방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처리 하였다.

1.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요인 분석법(principal components)과 직교회전법(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을 이용했다. 이때 요인 부하량 및 요인 적재값은 0.4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고유값은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3. 청소년의 통제변인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항목에 대해서는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4.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집단과 비 집단 간의 학교폭력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검증은 공분산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5.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과 비 집단 간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6. 스포츠 활동 참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7. 가설 검증은 유의 수준  $\alpha=.05$ 에서 이루어졌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 부모의 학력, 직업특성과 스포츠 활동 참가경험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 간에 상관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 A. 통제변인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

#### 1. 통제변인과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과 관계

가설 I은 "통제변인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a. 학업성적과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과 관계

가설 I-1-1은 "학업성적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8. the difference in tease on a school record

division	M±SD	df	F	p	post hoc (Scheffe)
high	2.27±1.13				
middle	2.19±1.04	2	.664	.515	-
low	2.26±1.08				

table 8.에 의하면 학업성적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적인 상(2.27±1.13), 중(2.19±1.04), 하(2.26±1.08) 성적들의 학생들 간에는 괴롭힘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과 관계

가설 I-1-2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division	M±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 a middleschool ①	2.59±1.23				
under- a highscool ②	2.20±1.06	2	7.744***	<.001	①>②,③
under- a university ③	2.18±1.05				

\*\*\*p<.001

table 9.에 의하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744, p<.001).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인 중졸이하(2.59±1.23)를 가진 학생이 대졸이하(2.18±1.05), 고졸이하(2.20±1.06)의 아버지의 학력을 가진 학생보다 괴롭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과 관계

가설 I-1-3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0.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division	M±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 a middleschool ①	2.59±1.24				
under- a highscool ②	2.20±1.03	2	8.326***	<.001	①>②,③
under- a university ③	2.18±1.09				

\*\*\*p<.001

table 10.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326, p<.001$ ).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인 중졸이하( $2.59\pm 1.24$ )를 가진 학생이 대졸이상( $2.23\pm 1.09$ ), 고졸이하( $2.17\pm 1.03$ )의 어머니의 학력을 가진 학생보다 괴롭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d. 아버지의 직업과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과 관계

가설 I-1-4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1.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vocational level of father

division	M±SD	df	F	p	post hoc (Scheffe)
professional	2.25±1.17				
manager, administrative	2.27±1.12				
technical post	2.14±1.06				
employee	2.24±0.99	7	.599	.758	-
faculty	2.28±1.03				
sales	2.32±1.36				
self-employed business	2.41±1.16				
inoccupation	2.34±1.28				

table 11.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직업인 전문직( $2.25\pm 1.17$ ), 경영자, 관리직( $2.27\pm 1.12$ ), 전문기술직( $2.14\pm 1.06$ ), 사무직( $2.24\pm 0.99$ ), 기능직( $2.28\pm 1.03$ ), 판매업( $2.32\pm 1.36$ ), 자영업( $2.41\pm 1.16$ ), 무직( $2.34\pm 1.28$ )에 따라 학생들 간의 괴롭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 어머니의 직업과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과 관계

가설 I-1-5는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2.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vocational level of mother

division	M±SD	df	F	p	post hoc (Scheffe)
professional	2.42±1.31				
manager, administrative	2.28±1.30				
technical post	2.31±1.13				
employee	2.23±1.00				
faculty	2.14±0.89	7	1.856	.073	-
sales	2.84±1.67				
self-employed	2.16±1.00				
business					
inoccupation	2.44±1.38				

table 12.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대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인 전문직(2.42± 1.31), 경영자, 관리직(2.28± 1.30), 전문기술직(2.31± 1.13), 사무직(2.23± 1.00), 기능직(2.14± 0.89), 판매업(2.84± 1.67), 자영업(2.16± 1.00), 무직(2.44± 1.38)에 따라 학생들 간의 괴롭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친구의 영향과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의 관계

가설 I-1-6은 "친구의 영향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3. the difference in tease on the friends' influence

division	M±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 2~3 people ①	2.09±1.03				
under 4~9 people ②	2.31±1.02	2	15.4456***	.001	①>②>③
over 10 people ③	2.59±1.27				

\*\*\*p<.001

table 13.에 의하면 친구의 영향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의 영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5.446, p<.001).

결과에 따르면 친구의 영향이 10명 이상(2.59±1.27)의 친구를 가진 학생이 4~9명(2.31±1.02)보다, 그리고 4~9명 이하(2.31±1.02)의 친구를 학생이 가진 2~3명 이하(2.09±1.03)의 친구를 가진 학생보다 괴롭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통제변인과 학교폭력 행동의 성폭력

### a. 학업성적과 학교폭력 행동의 성폭력과 관계

가설 1-2-1은 "학업성적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4.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a school record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high	2.22± 1.19				
middle	2.11± 1.04	2	.839	.432	-
low	2.14± 1.06				

table 14.에 의하면 학업성적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성폭력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적인 상위(2.22±1.19)인 학생이나, 중위(2.11±1.04), 하위(2.14±1.06)인 성적을 가진 학생들 모두 성적 순위와 성폭력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학교폭력 행동의 성폭력과 관계

연구의 가설 I-2-2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5.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 a middleschool	2.26± 1.16				
under- a highscool	2.12± 1.04	2	.852	.427	-
under- a university	2.16± 1.00				

table 15.에 의하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성폭력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인 중졸이하(2.26±1.16), 고졸이하(2.12±1.04), 대졸이상(2.16±1.10)의 부를 가진 학생들 간에는 성폭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학교폭력 행동의 성폭력과 관계

가설 I-2-3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6.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 a middleschool	2.59±1.24	2	1.296	.274	-
under- a highscool	2.17±1.03				
under- a university	2.23±1.09				

table 16.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성폭력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인 중졸이하( $2.59 \pm 1.24$ )를 가진 학생이나 고졸이하( $2.17 \pm 1.03$ ), 대졸이상( $2.23 \pm 1.09$ )의 어머니를 가진 학생들 모두 다 교육수준과 성폭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d. 아버지의 직업과 학교폭력 행동의 성폭력과 관계

가설 I-2-4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7.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vocational level of father

division	M ± SD	df	F	p	post hoc (Scheffe)
professional	2.16± 1.09				
manager, administrative	2.15± 1.03				
technical post	2.09± 1.08				
employee	2.15± 1.08	7	1.377	.211	-
faculty	2.11± 0.98				
sales	2.00± 1.07				
self-employed business	2.56± 0.33				
inoccupation	2.38± 1.28				

table 17.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성 폭력에 대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직업인 전문직( $2.16 \pm 1.09$ ), 경영자, 관리직( $2.15 \pm 1.03$ ), 전문기술직( $2.09 \pm 1.08$ ), 사무직( $2.15 \pm 1.08$ ), 기능직( $2.11 \pm 0.98$ ), 판매업( $2.00 \pm 1.07$ ), 자영업( $2.56 \pm 0.33$ ), 무직( $2.38 \pm 1.28$ )의 직업을 가진 학생들 간에는 성폭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 어머니의 직업과 학교폭력 행동의 성폭력과 관계

가설 I-2-5는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성폭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8.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vocational level of mother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professional	2.33± 1.28				
manager, administrative	2.06± 1.06				
technical post employee	2.27± 1.05				
faculty	2.12± 1.03	7	3.259**	.002	-
sales	1.84± 0.88				
self-employed business	2.47± 1.38				
inoccupation	2.11± 0.03				
	2.71± 1.57				

\*\*p<.01

table 18.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성 폭력에 대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59, p=.01).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이 무직(2.71±1.57)의 경우에 경영자, 관리직, 자영업 (2.11±0.03)어머니의 직업을 가진 학생들 보다는 성폭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친구의 영향과 학교폭력 행동의 성폭력과의 관계

가설 I-2-6은 "친구의 영향은 성폭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9. the difference in sexual abuse on the friends' influence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 2~3 people ①	2.52± 1.15	2	15.520***	.001	①>②>③
under 4~9 people ②	2.21± 1.00				
over 10 people ③	2.01± 1.06				

\*\*\*p<.001

table 19.에 의하면 친구의 영향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성폭력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의 영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520, p<.001$ )

결과에 따르면 친구의 영향이 2~3명 이하( $2.52\pm 1.15$ )를 가진 학생이 4~9명 ( $2.21\pm 1.00$ )보다 그리고 4~9명( $2.21\pm 1.00$ )의 친구를 가진 학생이 10명이상 ( $2.01\pm 1.06$ )의 친구를 가진 학생 보다 성폭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인과 학교폭력 행동의 따돌림

#### a. 학업성적과 학교폭력 행동의 따돌림과 관계

가설 1-3-1은 "학업성적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0.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a school record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high	1.80± 1.04				
middle	1.68± 0.87	2	1.203	.301	-
low	1.74± 0.93				

table 20.에 의하면 학업성적에 따라 폭력 행동인 따돌림에 대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적인 하위( $1.74\pm 0.93$ )인 학생이나 상위( $1.80\pm 1.04$ ), 중위 ( $1.68\pm 0.87$ ), 성적을 가진 학생들 간 모두 따돌림과 학교성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b.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학교폭력 행동의 따돌림과 관계

가설 1-3-2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1.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a middleschool ①	1.99± 1.06				
under-a highschool ②	1.72± 0.90	2	5.577**	.004	①>②,③
under-a university ③	1.68± 0.93				

\*\*p<.01

table 21.에 의하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따돌림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577, p=.004).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인 중졸이하(1.99±1.06)를 가진 학생이 고졸이하(1.72±0.90), 대졸이상(1.68±0.93)의 아버지를 가진 학생 보다 따돌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c.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학교폭력 행동의 따돌림과 관계

가설 I-3-3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2.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a middleschool ①	1.94± 1.09				
under-a highschool ②	1.71± 0.88	2	3.789*	.023	①>②,③
under-a university ③	1.69± 1.00				

\*p<.05

table 22.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따돌림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89, p=.023).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1.94±1.09)를 가진 학생이 고졸이하(1.71±0.88), 대졸이상(1.69±1.00)의 어머니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따돌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 아버지의 직업과 학교폭력 행동의 따돌림과 관계

가설 I-3-4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3.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vocational level of father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professional ①	1.78± 0.93				
manager, administrative ②	1.69± 0.89				
technical post ③	1.65± 0.89				
employee ④	1.76± 0.98	7	2.719**	.008	⑦>⑧
faculty ⑤	1.73± 0.92				
sales ⑥	1.84± 0.93				
self-employed business ⑦	2.05± 1.11				
inoccupation ⑧	1.74± 1.10				

\*\*p<.01

table 23.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따돌림에 대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19, p=.01).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직업인 자영업(2.05±1.11)의 경우 무직(1.74±1.10) 아버지의 직업을 가진 학생들 보다는 따돌림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 어머니의 직업과 학교폭력 행동의 따돌림과 관계

가설 I-3-5는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4.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vocational level of mother

division	M±SD	df	F	p	post hoc (Scheffe)
professional ①	1.70± 1.07				
manager, administrative ②	1.67± 0.83				
technical post ③	1.81± 0.91				
employee ④	1.74± 0.92				
faculty ⑤	1.73± 0.89	7	1.302	.246	-
sales ⑥	2.26± 1.32				
self-employed business ⑦	1.66± 0.88				
inoccupation ⑧	2.21± 1.37				

table 24.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따돌림에 대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인 전문직(1.70±1.07), 경영자, 관리직(1.67±0.83), 전문기술직(1.81±0.91), 사무직(1.74±0.92), 기능직(1.73±0.89), 판매업(2.26±1.32), 자영업(1.66±0.88), 무직(2.21±1.37)에 따라 학생들 간에는 성폭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f. 친구의 영향과 학교폭력 행동의 따돌림과 관계

가설 I-3-6은 "친구의 영향에 따라 따돌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5. the difference in bullying on the friends' influence

division	M± SD	df	F	p	post hoc (Scheffe)
under 2~3 people ①	1.63± 0.91				
under 4~9 people ②	1.75± 0.86	2	12.615***	.001	③>②,①
over 10 people ③	2.04± 1.13				

\*\*\*p<.001

table 25.에 의하면 친구의 영향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따돌림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의 영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615, p<.001$ ).

결과에 따르면 친구의 영향인 10명이상( $2.04\pm 1.13$ )의 친구를 가진 학생이 4-9명( $1.75\pm 0.86$ ), 2-3명 이하( $1.63\pm 0.91$ )의 친구를 가진 학생 보다 따돌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B.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

### 1.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의 관계

가설 II는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과 비참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ANCOVA를 실시하였다.

#### a.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과 관계

가설 II-1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참가 청소년과 비참가 청소년의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ANCOVA를 실시하였다.

table 26.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tease

division	N	M	SD
experience	402	1.50	.71
non-experience	650	1.52	.68

table 26.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괴롭힘 경험은 참가자 ( $M=1.50$ ) 비참가자( $M=1.52$ )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table 27. ANCOVA for tease

variable	SS	df	M S	F	Sig.
covariabl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3.162	1	3.162	6.937**	.009
educational level of mother	2.072	1	2.072	4.546*	.033
friends' influence	14.470	1	14.470	31.747***	.001
a school record	3.106	1	3.106	6.914**	.009
vocational level of father	5.932	1	5.932	13.015***	.001
vocational level of mother	.283	1	.283	.620	.431
effect of experience-non-experience	133	1	.133	.292*	.025
error	475.843	1044	.456		
total	508.117	1051			
$R^2=.064$ (Adjusted $R^2=.057$ )					

\*p<.05 \*\*p<.01 \*\*\*p<.001

table 27.의 공변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학교성적, 친구 영향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 경험에 어머니의 직업을 제외한 아버지학력(p<.01), 어머니학력(p<.05), 친구영향(p<.001), 학업성적(p<.01), 아버지직업(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 효과인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35, p=.025). 그리고 비참가자(1.52±68)가 참가자(1.50±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는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 전체변량의 6.4(R<sup>2</sup>=.064)를 설명하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변인 중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학교의 성적, 친구의 영향이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이 의미 있는 변인이며,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서 비참가자가 참여자보다 괴롭힘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 C.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른 심리적 특성

### 1.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가설 III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과 비참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ANCOVA를 실시하였다.

#### a.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와 심리적 특성인 우울에 관한 관계

가설 III-1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참가 청소년과 비참가 청소년의 우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ANCOVA를 실시하였다.

table 28.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depression

division	N	M	SD
experience	402	1.24	.84
non-experience	649	1.41	.90

table 28.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우울 경험은 참가자 (M=-1.24)가 비참가자(M=1.41)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table 29. ANCOVA for depression

variable	S S	df	M S	F	Sig.
covariabl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3.062	1	3.062	.040	.842
educational level of mother	2.148	1	2.148	2.797	.095
friends' influence	10.535	1	10.535	13.713***	.001
a school record	8.084	1	8.084	.105	.746
vocational level of father	.464	1	.464	.604	.437
vocational level of mother	1.802	1	1.802	.023	.878
effect of experience ·non-experience	5.814	1	5.814	7.568**	.006
error	801.241	1043	.768		
total	823.601	1050			
R <sup>2</sup> =.027 (Adjusted R <sup>2</sup> =.021)					

\*\* p<.01 \*\*\* p<.001

table 29.의 공변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학교의 성적, 친구의 영향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우울에서 친구의 영향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또한 주효과인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우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그리고 비참자( $1.41 \pm .90$ )가 참가자( $1.24 \pm .84$ )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는 심리적 특성 전체변량의 2.7%( $R^2 = .027$ )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변인 중 친구의 영향이 심리적 특성인 우울이 의미 있는 변인이며,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서 비참자가 참여자보다 우울이 높음을 나타나고 있다.

### b.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의 활력에 관한 관계

가설 III-2는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 비참자 청소년의 활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0.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sexual violence

division	N	M	SD
experience	401	1.87	.82
non-experience	651	1.75	.92

table 30.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활력 경험은 참가자( $M = 1.87$ )가 비참자( $M = 1.75$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table 31. ANCOVA for vitality

variable	SS	df	M S	F	Sig
covariabl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517	1	.517	.707	.401
educational level of mother	1.44	1	1.44	1.928	.165
friends' influence	8.608	1	8.608	11.767***	.001
a school record	2.197	1	2.197	3.003	.083

vocational level of father	.719	1	.719	.983	.322
vocational level of mother	1.861	1	1.861	2.544	.111
effect of experience-non-experience	2.213	1	2.123	2.902**	.009
error	763.753	1044	.732		
total	783.317	1051			
$R^2=.025(\text{Adjusted } R^2=.018)$					

\*\*p<.01    \*\*\*p<.001

table 31.에 의하면 공변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학교의 성적, 친구의 영향을 처리하였을 때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활력에서 친구의 영향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또한 주효과인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활력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그리고 참가자(1.87±.82)가 비참가자(1.75±.9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는 심리적 특성 전체변량의 2.5%( $R^2=.025$ )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변인 중 친구의 영향이 심리적 특성인 활력이 의미 있는 변인이며,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서 비참가자가 참여자보다 활력이 높음을 나타나고 있다.

### c.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의 분노에 관한 관계

가설 III-3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과 비참가 청소년의 분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anger

division	N	M	SD
experience	402	1.96	.82
non-experience	653	2.11	.85

table 32.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분노 경험은 참가자(M=1.96) 비참가자 (M=2.11)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table 33. ANCOVA for anger

variable	SS	df	M S	F	Sig
covariabl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500	1	.500	.665	.415
educational level of mother	3.348	1	3.348	.000	.983
friends' influence	7.438	1	7.438	9.894**	.002
a school record	3.484	1	3.484	4.634*	.032
vocational level of father	2.588	1	2.528	3.363	.67
vocational level of mother	1.861	1	.708	.942	.332
effect of experience-non-experience	.708	1	4.742	6.308*	.012
error	785.653	1045	.752		
total	806.263	1052			
$R^2=.026$ (Adjusted $R^2=.019$ )					

\*p<.05 \*\*p<.01

table 33.에 의하면 공변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학교의 성적, 친구의 영향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분노에서 친구(p<.01), 학교성적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5), 또한 주효과인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분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비참가자 (2.11±.85)가 참가자 (1.96±.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는 심리적 특성 전체변량의 2.6%( $R^2=.026$ )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변인 중 친구의 영향, 학교의 성적이 심리적 특성인 분노에 의미 있는 변인이며,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서 비참가자가 참여자보다 분노가 높음을 나타나고 있다.

d.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의 불안에 관한 관계

가설 III-4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과 비참가 청소년의 불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4.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anxiety

division	N	M	SD
experience	402	1.77	1.06

non-experience	652	1.91	.94
----------------	-----	------	-----

table 34.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불안경험은 참가자 (M=1.77)가 비참가자(M=1.91)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table 35. ANCOVA for anxiety

variable	SS	df	M S	F	Sig
covariabl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1.363	1	1.363	1.398	.237
educational level of mother	.624	1	.624	.640	.424
friends' influence	.933	1	.933	.957	.328
a school record	.147	1	.147	.150	.698
vocational level of father	5.222	1	5.222	.005	.942
vocational level of mother	2.523	1	2.523	2.588	.108
effect of experience-non-experience	4.183	1	4.183	4.298*	.039
error	1019.562	1046	.975		
total	1033.164	1053			
R <sup>2</sup> =.013(Adjusted R <sup>2</sup> =.007)					

\*p<.05

table 35.의 공변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학교의 성적, 친구의 영향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분노에서 친구의 영향에서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효과인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 불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비참가(1.91±.94)가 참가자(1.77±1.0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는 심리적 특성 전체변량은 1.3%(R<sup>2</sup>=.013)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변인 중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학교의 성적, 친구의 영향, 심리적 특성인 불안에 의미가 없는 변인이며,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서 비참가자가 참여자보다 불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자아 존중감의 관계

가설 III-5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과 비참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ANCOVA를 실시하였다.

table 36.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in self-respect

division	N	M	SD
experience	402	3.58	.78
non-experience	652	3.44	.74

table 36.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자아 존중감은 참가자 (M=3.58) 비참가자(M=3.4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table 37. ANCOVA for self-respect

variable	SS	df	M S	F	Sig
covariabl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2.275	1	2.275	4.080*	.044
educational level of mother	4.656	1	4.656	.084	.773
friends' influence	15.404	1	15.404	27.628***	.001
a school record	4.851	1	4.851	8.700**	.003
vocational level of father	2.326	1	2.326	.042	.838
vocational level of mother	2.805	1	2.805	5.030*	.025
effect of experience-non-experience	2.664	1	2.664	4.778*	.029
error	583.020	1046	.558		
total	615.500	1053			

R<sup>2</sup>= .052(Adjusted R<sup>2</sup>= .046)

\*p<.05 \*\*p<.01 \*\*\*p<.001

table 37.에 의하면 공변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학교의

성적, 친구의 영향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성인 자아 존중감에서 아버지의 학력( $p < .05$ ), 어머니의 직업( $p < .05$ ), 학교의 성적( $p < .01$ ), 친구의 영향( $p < .001$ )에서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효과인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 자아 존중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 = 4.778, p = .029$ ). 그리고 참가자( $3.58 \pm .78$ )가 비참가자( $3.44 \pm .74$ )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는 심리적 특성의 자아 존중감 전체변량의 5.2%( $R^2 = .052$ )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변인 중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학교의 성적, 친구의 영향이 심리적 특성인 자아 존중감에 의미가 있는 변인이며,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에서 참가자 비참가자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나고 있다.

#### f.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8. the correlation of mental feature and school violence

division	depression	vitality	anger	anxiety	positive-self	negative-self	tease	sexual violence	bullying
depression	1								
vitality	.062*	1							
anger	.538**	-.026	1						
anxiety	.470**	.083**	.336**	1					
positive-self	.453**	-.145**	.323**	.293**	1				
negative-self	-.263**	.364**	-.155**	-.146**	-.428**	1			
tease	.240**	.066*	.094**	.013	.092**	-.053	1		
sexual violence	.223**	.670*	.058**	-.014	.058	-.021	.734**	1	
bullying	.243**	.041	.141**	.033	.194**	-.151**	.527**	.412*	1

\* $p < .05$     \*\* $p < .01$

table 38.에 의하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폭력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특성인 우울, 활력, 분노, 불안, 긍정적 자아 존중감, 부정

적 자아 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학교폭력 행동을 살펴보면 괴롭힘, 심리적 폭력, 성폭력, 따돌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학교폭력 행동의 관계에서 관계가 정(+ )적 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

가설 IV-1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a.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괴롭힘의 관계

가설 IV-1-1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괴롭힘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9.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tease

independent-variable	dependent-variable	B	SE	$\beta$	t	F
depression	tease	.268	.047	.311	5.690***	16.227
anxiety		-.114	.038	-1.65	-3.016**	

$R^2=.074$     Adjusted  $R^2=0.69$   
 $y = 1.400 + (.268)*depression - (.114)*anxiety$

\*\*p<.01    \*\*\*p<.001

table 39.에 의하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 중 심리적 특성변인인 우울, 활력, 분노, 불안, 자아 존중감이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정계수를 검증 한 결과  $R^2$ 값이 .074로 나타나 심리적 특성인 우울과 불안은 괴롭힘에 7.4%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독립변인인 활력, 분노는 단계선택의 기준인 입력한 F의 확률 <=.050, 제거한 F의 확률>=100에 의해 제거되고 우울과 불안만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우울과 불안의 회귀계수는 각각 .264 과 -.114로서 다른 독립변인인 활력과 분노보다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p<.001 수준에서, 불안은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성폭력의 관계

가설 IV-1-2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성폭력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0.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sexual violence

independent-variable	dependent-variable	B	SE	$\beta$	t	df	F
depression anxiety	sexual -violence	.283 -.201	.053 .042	.291 -.259	5.346*** -4.751***	2	17.317
				$R^2=.078$	Adjusted $R^2=.074$		
				$\hat{y}=1.391+ (.283)*depression-(.201)*anxiety$			

\*\*\*p<.001

table 40.에 의하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 중 심리적 특성변인인 우울, 활력, 분노, 불안, 자아 존중감이 학교폭력 행동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정계수를 검증 한 결과  $R^2$ 값이 .078로 나타나 심리적 특성인 우울과 불안은 성폭력에 7.8%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독립변인인 활력, 분노는 단계선택의 기준인 입력한 F의 확률 <=.050, 제거한 F의 확률>=100에 의해 제거되고 우울과 불안만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우울과 불안의 회귀계수는 각각 .283 과 -.201로서 다른 독립변인인 활력과 분노보다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따돌림의 관계

가설 IV-1-3는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따돌림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1.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bullying

independent-variable	dependent-variable	B	SE	$\beta$	t	df	F
depression		.167	.053	.182	3.118***		
vitality	bullying	.102	.049	.117	2.094***	3	13.893
self-respect		.098	.049	-.099	-1.185***		
					$R^2=.093$	Adjusted $R^2=.086$	
$\hat{y} = 1.873 + (.167) * \text{depression} + (.102) * \text{vitality} + (.098) * \text{self-respect}$							

\*\*\*p<.001

table 41.에 의하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가 중 심리적 특성변인인 우울, 활력, 분노, 불안, 자아 존중감이 학교폭력 행동인 따돌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정계수를 검증 한 결과  $R^2$ 값이 .093로 나타나 심리적 특성인 우울과 불안은 따돌림에 9.3%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독립변인인 불안, 분노는 단계선택의 기준인 입력한 F의 확률 $\leq$ .050, 제거한 F의 확률 $\geq$ 100에 의해 제거되고 우울과 불안만이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우울과 활력, 자아 존중감의 회귀계수는 각각 .167 과 .102, .098로서 다른 독립변인인 불안과 분노보다 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활력, 불안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 스포츠 활동 비 참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가설 IV-2는 "스포츠 활동 비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괴롭힘의 관계

가설 IV-2-1은 "스포츠 활동 비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괴롭힘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2.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tease

independent - variable	dependent-variable	B	SE	$\beta$	t	df	F
depression		.217	.032	.292	6.810***		
vitality	tease	.075	.031	.091	2.385***	3	18.054
anxiety		-.069	.031	-.096	-2.245***		

$$R^2 = .079 \quad \text{Adjusted } R^2 = .075$$

$$\hat{y} = 1.189 + (2.17) * \text{depression} + (.075) * \text{vitality} - (.069) * \text{anxiety}$$

\*\*\*p<.001

table 42.에 의하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 중 심리적 특성변인인 우울, 활력, 분노, 불안, 자아 존중감이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정계수를 검증 한 결과 R<sup>2</sup>값이 .079로 나타나 심리적 특성인 우울과 불안은 괴롭힘에 7.9%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독립변인인 분노, 자아 존중감은 단계선택의 기준인 입력한 F의 확률 <=.050, 제거한 F의 확률>=100에 의해 제거되고 우울과 활력, 불안만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우울과 활력 불안의 회귀계수는 각각 .217 과 .075, -.069로서 다른 독립변인인 분노와 자아 존중감보다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활력, 불안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포츠 활동 비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성폭행의 관계

가설 IV-2-2은 "스포츠 활동 비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성폭력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3.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sexual violenc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 variable	B	SE	$\beta$	t	df	F
depression	sexual	.212	.030	.266	6.989***	2	29.663
vitality	-violence	.102	.033	.116	3.057***		
				$R^2 = .086$	Adjusted $R^2 = .083$		
				$\hat{y} = .867 + (.212) * \text{depression} + (.102) * \text{vitality}$			

\*\*\*p<.001

table 43.에 의하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 중 심리적 특성변인인 우울, 활력, 분노, 불안, 자아 존중감이 학교폭력 행동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정계수를 검증 한 결과  $R^2$ 값이 .086로 나타나 심리적 특성인 우울과 활력은 성폭력에 8.6%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독립변인인 불안과 분노, 자아 존중감이 단계선택의 기준인 입력한 F의 확률  $\leq .050$ , 제거한 F의 확률  $\geq 100$ 에 의해 제거되고 우울과 불안만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우울과 활력의 회귀계수는 각각 .212과 .102로서 다른 독립변인인 불안과 분노, 자아 존중감보다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활력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포츠 활동 비 참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따돌림의 관계

가설 IV-2-3은 "스포츠 활동 비 참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따돌림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4. the analysis of multi-level regression for mental feature and bullying

independent-variable	dependent-variable	B	SE	$\beta$	t	df	F
depression	bullying	.181	.042	.198	4.296***	5	14.898
vitality		.147	.042	.146	3.477***		
anxiety		-.143	.037	-.163	-3.838***		
self-respect		-.133	.042	.150	3.308***		

$R^2 = .106$  Adjusted  $R^2 = .099$

$\hat{y} = 1.823 + (.181) * \text{depression} + (.147) * \text{vitality} - (.143) * \text{anxiety} - (.133) * \text{self-respect}$

\*\*\*p<.001

table 44.에 의하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 중 심리적 특성변인인 우울, 활력, 분노, 불안, 자아 존중감이 학교폭력 행동인 따돌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 값이 .106로 나타나 심리적 특성인 우울과 불안은 따돌림에 11%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독립변인인 분노는 단계선택의 기준인 입력한 F의 확률  $\leq .050$ , 제거한 F의 확률  $\geq 100$ 에 의해 제거되고 우울과 불안만이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우울과 활력, 불안과 자아 존중감의 회귀계수는 각각 .181과 .147, -.143과 -.133로서 다른 독립변인인 분노보다 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활력 그리고 불안과 자아 존중감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 의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스포츠의 활동은 개개인의 심신의 성장 발달, 심리적 기능으로는 근원적인 경향성을 해소시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갖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지능력을 발휘하고 정서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기능으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의 기준과 양식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덕적 판단이나 자율성을 발달시켜 자아를 성장시키고 상호 권리의 존중을 학습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고, 스포츠에 대한 감정표출,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력 있는 것으로 즉,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 일상적인 학교수업에 대한 부담감과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 완화하고, 잠재적 폭력성을 합법적으로 발산하고 있다. 그리고 정서안정, 순화, 사회성, 도덕성함양,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의 기회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 무대뿐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경쟁의 규범이나 윤리를 양면화함으로써 경쟁사회 전반의 행동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폭행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전인교육의 하나인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심리적 특성인 근원적 경향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사회심리환경이나 사회 물리 환경의 작용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모든 인간은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 참가와 청소년 폭행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외면적인 생활환경과 사회조건, 내면적 스포츠 활동 참가 여부들이 청소년 폭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의 형태와 외면적인 생활환경인 학교성적, 부모학력, 부모직업, 친구의 영향에 따라 심리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에서 밝혀진 가설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참가 유·무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A. 통제변인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

가설1의 검증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행동인 괴롭힘에서는 통제변인 특성인 외면적인 생활환경과 사회 조건인 사회 경제 지위인 부모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직업에서, 그리고 성폭력에서는 어머니의 직업과 친구의 영향에서만 학교폭력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직업, 친구의 영향에서 학교폭력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특성과 학교폭력 행동관계에서 괴롭힘을 제외한 성폭력, 따돌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친구의 영향에서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은 사회 경제 지위인 부모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직업, 친구의 수에 따라서 학교폭력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친구의 수가 많거나 적을 경우 또한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에 학교폭력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Kail & Wicks-Nelson(1993)은 가정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유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을 통해 부적절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는데, 가정의 빈곤은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설명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적절한 좋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며 범죄와 연관된 일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가정의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혹은 범죄위험이 있는 이웃과 인접해 있는 것도 청소년 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실업, 가정 내 일인당 공간 소유 정도, 가정 내 교육을 위한 교구 및 재료의 부재 등이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김준호(1997)가 밝혔고, 가정 내 부모의 양육 형태와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는 또래집단을 사귀고 자신의 학문적 사회적 능력과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이자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학교는 폭력이 발생할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 및 친구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Herrenkohl, et al(2000)은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학업 성취 정도가 낮을 경우 학교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학교폭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과 방법에 관한 연구는 학교폭력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친구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학교폭력과 관련될 수 있는 친구 요인은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체적으로 강하며 공격성이 높은 친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많으므로 친구관계에 있어 적대적이고 또래를 지배하고 조정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행동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품행에 문제가 있어 협동심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폭력 가해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원만하지 않은 친구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을 좋아하지 않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해 청소년과 가깝게 지내거나 어울릴 경우, 학교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많은 연구들은 비행 친구와의 접촉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arkin, Kreiter, & Durant, 2001).

청소년의 폭력조직 가입 여부와 폭력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교제하고 있는지가 학교폭력 유발 위험 요인이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친구집단과 어울리지 못할 경우, 갈등상황에서 협동과 타협과 같은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류세홍(1999)은 학교폭력 행동이 친구집단의 비행성향과 친구로부터의 비행압력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했고, 정지민(1998)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행 친구 접촉, 가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비행경험이었다고 했다.

류세홍(1999)은 친구에 대한 애착이 도시지역에서 폭력 가해와 정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청소년의 친구집단이 비행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행동의 피해나 가해도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은미(2000)는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서 또래의 영향이 학교폭력

행동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친구의 영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과 학업성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다만 사회경제지위인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친구의 영향인 친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폭력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폭행에서만 친구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성폭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대체로 성폭행은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남모르게 하려는 심리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일반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더라도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성폭행을 많이 하는 것도 현장경험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되었다.

## B. 스포츠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

가설2의 검증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는 학교폭력행동인 괴롭힘, 심리적 폭력, 성폭력, 따돌림에서 스포츠 활동 비참가자 집단이 참가자 집단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이 비참가자의 집단보다 모든 학교폭력 행동에서 학교폭력 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스포츠 활동과 폭력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다수 연구의 초점은 "억제(deterrence)"와 "재활(rehabilitation)"에 관한 것으로서, 억제(deterrence)는 스포츠 활동이 폭력을 방지한다고 주장과 재활(rehabilitation)은 스포츠 활동참가자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폭행자를 환경에 재적응 혹은 대처시킨다고 주장이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뒷받침 해주고 있다.

스포츠 경기 참가와 비행간의 전반적인 관계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운동선수들이 비행 수준이 낮다고 보고있다.

Segrave(1983)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있어서 스포츠 경기 참가자 및 남녀 운동선수에게 비행에 관한 자기보고 질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비행에 응답한 운동선수의 비행이 비운동 선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 운동선

수가 비운동 선수에 비하여 비행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Segrave(1983)는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스포츠경기 참가와 비행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스포츠 활동 참가자가 비참가자에 비하여 비행이 적은 것으로 또한 스포츠 경기가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C. 스포츠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

가설3의 검증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는 심리적 특성인 우울, 분노, 불안에서 스포츠 활동 비참가자 집단이 참가자 집단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력은 스포츠 활동 참가자 집단이 비참가자 집단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스포츠 활동 참가자가 비참가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스포츠 비집단이 참가자 집단보다 모든 심리적 특성인 정신건강인 기분적인 요인에서 불안, 우울, 분노 수준이 높으므로 안정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나타난 스포츠 활동 유·무에 따라 심리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 비참가자 집단들에서 참가자집단에 비해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은 낮고, 불안수준이 높고, 우울해하며, 분노가 높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자신을 실패자로 보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반면에 명백한 보상을 기대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학교에서 또래 거부가 높아 외롭고, 자포자기한 상태이며, 대체로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Olweus, 1991; Smith & Brain, 2000).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낮으며, 친한 친구, 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지지를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게 생각하고 우울한 특성을 보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는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춘재, 박금주, 2000).

Olweus(1991)는 또래학생들보다 피해학생들이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Hoover, Oliver와 Hazler(1992)는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90%가 학교성적의

저하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ong, et al(1998)은 정신적 피해로 불안이 높고, 우울하고, 사회적 고립, 분노가 높고, 자신감은 적어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 등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정신적 특성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에 참가하는 집단의 심리적 특징인 정신건강인 기본적인 요인에서 불안, 우울, 분노 수준이 낮으므로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스포츠 활동 참가자의 집단이 비참가 집단보다 모든 심리적 특징인 정신건강인 정서적인 요인에서 불안, 우울, 분노 수준이 낮으므로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비참가자 집단보다 자아 존중감은 높고, 불안수준은 낮고, 우울도 낮고, 분노가 낮으며, 활력은 높은 편이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만들을 해소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은 낮지 않으므로 해서 자신 만만해지고, 외향적인 학생들은 더욱 활발해지고, 내성적인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내면에 쌓여있는 불안이나 분노들을 해소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나타나는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고립간의 해소, 개인의 판단능력 향상, 집단협동의 증진, 집단에 대한 만족감 등의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심리적 가치에서는 올바른 태도 형성, 사회적응력배양, 감각지각과 반응의 향상, 정신건강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근원적인 경향성 해소를 통하여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폭행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부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욕구를 갖고 있는 우발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정화시키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주로 많이 노는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심리적 억압들을 해소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이에 따라 통합적인 교육기재로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에 효과적인 방지책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사료되며, 또한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건강 체력 유지 증진은 물론 사회 정서적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행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일탈행위들을 감소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여러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학교폭력 행동들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제반적인 문제로 인한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의 문제들을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예방 및 선도책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 행동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서 최소화하고 그들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유용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스포츠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7개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의 선정은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에는 총 1,054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스포츠 활동 참가경험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통제변인은 학업성적,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친구의 영향 등 6가지를 통제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을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 유·무로, 종속변인을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따돌림, 성폭행, 괴롭힘)과 심리적 특성(불안, 분노, 우울, 활력, 자아 존중감)의 8가지로 결정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따돌림, 성폭행, 괴롭힘)질문지와 심리적 특성(불안, 분노, 우울, 활력,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통계적 기법들은 요인 분석, 일원분산(one-way ANOVA), 공분산 분석(ANCOVA)등 이었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스포츠 활동 참가 경험에 따라 학교폭력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학교폭력 행동의 괴롭힘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친구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높거나 부모의 직업이 있는 경우 괴롭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활동참가 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2) 성폭력 관계는 부모의 직업이 없거나 친구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는 경우 성폭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포츠 활동참가 집단이 비참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 3) 따돌림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거나 친구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참가 집단이 비참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 4) 심리적 특성은 스포츠 참가 집단이 우울, 분노, 불안은 비참가자에 비해 월등히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나 스포츠 활동참여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po.go.kr>
-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김준호(1997). 학교주변 폭력의 사회적 원인. 교육연구 333, 88-91.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 김충희(1995). 해외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류세홍(1999).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안전위원회 조직범죄정보 사이트. [www.alternatives.com/crime](http://www.alternatives.com/crime)
- 선우진(2001). 태권도 수련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염영옥(1999). 폭력청소년의 대인 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REBT집단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경우(2001).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스포츠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집.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은미(2000). 청소년 학교폭력의 요인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춘재, 박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 실태와 특성. 서울 : 집문당.
- 이학래(1990). 체육학 분야에서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임번장(2000). 스포츠 사회학 개론. 동화문화사.
- 정지민(1998). 학교폭력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지한영(2001). 무용전공대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청소년백서(2003). 문화관광부, p526. 대검찰청.

- 최자은(1998).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2000). 학교폭력상담사례집, 제4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성숙(1999). 학교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Barkin, S., Kreiter, S., & Durant, R. H.(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intentions to engage in moralistic violenc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4, 777-789.
- Biddle(1993). Assessment of children's Physical Self-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4, 93-109.
- Coakley(1983). Leaving competitive sport: Retirement or rebirth. *Quest*, 35, 1-11.
- Donnelly, P. & Young, K(1988). The construction and confirmation of Identity in Sport Subcultures. *Sociology of Sport Journal*, 5(3), 223-240.
- Ekkekakis, P. & Petruzzello, S.J.(1999). Acute aerobic exercise and affect: Current status, problems and prospects regarding dose-response. *Sports Medicine* 28, 337-374.
- Herrenkohl, T. I., Maguin, E., Hill, K. G., Hawkins, J. D., Abbott, R. D., & Catalano, R. F.(2000). Developmental risk factors for youth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6, 176-186.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1992). Bullying :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Hughes, R.,(1984). Mass Society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Sport *Sociology of Sport Journal(SSJ)*, 1(1).
- Jemes, W.(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1), New York : Henry Hoit and co.
- Johnson, R. E.(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il, R. V. & Wicks-Nelson, R.(1993). *Developmental Psychology*(5thed.).
- Kenyon. G. S.(1969). "Sport Involvement: A Conceptual Go and Some

- Consequences Thereof." In Aspects of Contemporary Sport Sociology, edited by G. Kenyon. Chicago: Athletic Institute Publishing, pp. 77-100.
- Kenyon, G. S. & McPherson, B. D.(1974). Becoming involved in physical experience and sport : A process of socialization. In G.L. Rarick(Ed), Physical and
- Leonard, W. M.(1980).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Minneapolis, MN: Burgess Publishing Company.
- McNair et al., D., Lorr, M, & Droppleman, L. F.(1971). Profile of mood states manual San Diego Educational and Testing service
- McPherson, B. D., Curtis, J., & Loy, J. W(1989).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ort :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Merton(1967). On Theoretical Sociology; Five Essays, Old and New (Paperback, 1967) Author: Robert King Merton.
- Nixon II, H. L.(1976). Sport and social organization. Indianapolis : Bobbs-Merrill.
-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 Basic factor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 Erlbaum.
- Rosenberg, M.(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egrave, J. O.(1983). Sport and Juvenile delinquency.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 11.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1976).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07-441.
- Smith, P. K., & Brain, P.(2000). Bullying in Schools : Lessons from two decades of research. *Aggressive Behavior*, 26, 1-9.
- Snyder Howard N.(2006). Juvenile arrests 2004 Juvenile justice bulletin.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Song, L. Y., Singer, M. I., & Anglin, T. M.(1998). Violence exposure and emotional trauma as contributors to adolescents' violent behaviors. Arch Pediatr Adolesc Med, 152, 531-536.

# 부 록

##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 학교폭력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 안내말씀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학교폭력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폭력을 예방하는데 매우 가치 있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청소년 관련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니 이에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계목적으로 무기명 통계 처리되어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써 사용되므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답이 없는 문항들이오니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항들에 “○”, 또는 “√”로 표시 하여 주시고 제시된 응답요령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동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스포츠심리학전공

한정선

## I. 기분상태

아래 단어들은 당신의 기분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옳고 그런 답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 상태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0부터 4까지)에 솔직하게 “○”, 또는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울1	절망적인	1	2	3	4	5
우울2	침울한	1	2	3	4	5
우울3	불안한	1	2	3	4	5
우울4	시무룩한	1	2	3	4	5
우울5	맥이 빠진	1	2	3	4	5
우울6	죄를 범한	1	2	3	4	5
우울7	두려운	1	2	3	4	5
우울8	불확실한	1	2	3	4	5
활력1	능률적인	1	2	3	4	5
활력2	원기왕성	1	2	3	4	5
활력3	신뢰하는	1	2	3	4	5
활력4	힘이 솟는	1	2	3	4	5
활력5	민첩한	1	2	3	4	5
분노1	피곤한	1	2	3	4	5
분노2	귀찮은	1	2	3	4	5
분노3	집중할 수 없는	1	2	3	4	5
불안1	안절부절한	1	2	3	4	5
불안2	당혹스러운	1	2	3	4	5

## II. 자아 존중감 척도

아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생각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긍정적 자아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5

### 2. 부정적 자아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3.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4.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1	2	3	4	5
5.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 III. 폭력행동 척도

지난 1년 동안 학교 내에서나 학교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 또는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따돌림1	친구가 인사해도 무시했다.	5	4	3	2	1
따돌림2	노는데 끼워주지 않았다.	5	4	3	2	1
따돌림3	묻는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5	4	3	2	1
따돌림4	점심을 같이 먹자는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다.	5	4	3	2	1
따돌림5	다른 친구와 놀지 못하게 했다.	5	4	3	2	1
괴롭힘1	소심한 성격을 갖은 아이를 놀려 본 적이 있다.	5	4	3	2	1
괴롭힘2	집안형편(매우 부유하거나 매우 가난해서)과 관련해서 놀린 적이 있다.	5	4	3	2	1
괴롭힘3	남의 체육복, 가방, 신발 등을 훼손시켜 본 적이 있었다.	5	4	3	2	1
괴롭힘4	목조르기, 옷 벗기기 등의 심한 행동을 해보았다.	5	4	3	2	1
괴롭힘5	내 숙제를 남에게 시켜 본 적이 있다.	5	4	3	2	1
괴롭힘6	매점가기 등의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5	4	3	2	1
괴롭힘7	가방을 들게 한 적이 있다.	5	4	3	2	1
괴롭힘8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한 적이 있다.	5	4	3	2	1
괴롭힘9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한 적이 있다.	5	4	3	2	1
괴롭힘10	다른 아이들에게 싫어하는 일을 시킨 적이 있다.	5	4	3	2	1
성폭행1	몸의 일부분을 건드린다거나 일부러 밀착시키고 만지는 등을 행위를 한 적이 있다.	5	4	3	2	1
성폭행2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억지로 벗겨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5	4	3	2	1
성폭행3	강제로 추행을 한 적이 있다.	5	4	3	2	1

## V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은 잘 읽으시고, 여러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 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께서는 요즘 방과 후에 운동 및 스포츠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지 않거나 2회 이하    ② 일주일 3회 이상이고, 지속시간 20분 이상

2. 본인은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연령 세)    ② 2학년(연령 세)    ③ 3학년(연령 세)

3. 재학중인 학교는?

- ① 인문계 고등학교    ② 실업계 고등학교    ③ 예체능 고등학교

4. 본인의 학업성취(학급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상위(1-10등)    ② 중위(11-20등)    ③ 하위(21등 이상)

5.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전문대 및 대졸 졸업(그 이상)

6.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전문대 및 대졸 졸업(그 이상)

7.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문직    ② 경영자, 관리직    ③ 전문 기술직  
④ 사무직    ⑤ 기능직, 작업직    ⑥ 판매, 서비스직  
⑦ 자영업    ⑧ 무직(가사)

기타 :

8.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

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문직                      ② 경영자, 관리직                      ③ 전문 기술직
- ④ 사무직                      ⑤ 기능직, 작업직                      ⑥ 판매, 서비스직
- ⑦ 자영업                      ⑧ 무직(가사)

기타 :

9. 친한 친구(동성 또는 이성 포함)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거나 2-3명 이하                      ② 4-9명                      ③ 10명 이상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시 당부사항

### <지도 선생님분들께>

본인(담당선생님 및 담당지도자) 것으로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도와주세요.

사전 동의와 양해를 받아주세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세요.

질문지의 본질 및 목적에 관해 잘 설명해주세요. - 청소년 관련 정책 -

무기명으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상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세요.

문항에 대해 정답이 없으므로 자기의 느낌을 솔직하게 바로 응답해야 된다고 주지시켜  
주세요.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세요.

질문지 배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즉시 하시고 최소한 1일 이내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꼭 받아 주세요.

피험자가 영터리로 표시할 경우 설문지 문항에서 나타나므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협조 감사드립니다.

##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주제설정에서부터 결실을 맺기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해 세심하게 자식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며, 평소에도 학사, 석사, 박사애 이르기까지 부족한 저를 10여년 동안 한결같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보살핌, 격려로 이끌어 주시며 따뜻한 인간 중심을 일깨워 주신 조동진 지도교수님께 대한 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의 논문 심사과정에서 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세밀한 지도, 수정보완을 하여 주신 주임교수님이신 원영두 교수님, 심사위원이신 김응식 교수님, 정명수 교수님, 송채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위과정 중에도,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도 언제나 많은 관심과 격려, 용기,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이규성 교수님, 위승두 교수님, 김철주 교수님, 김홍남 교수님, 윤오남 교수님, 안용덕 교수님, 이정일 교수님, 서영환 교수님, 이계행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언제나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이끌어주신 나승희 선생님과 친구, 선·후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힘든 역경이 올 때도, 오늘의 이 순간이 있기까지,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항상 변함없이 묵묵히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주신 저의 인생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아버님, 어머님께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 전하오며 존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과 친지 어른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항상 하루하루를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간직하며 이 사회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2007년 12월

한 정 선